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자력갱생의 창조물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남포유리병공장을 돌아보기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 아래 선군시대를 빛내고 있는 또 하나의 사랑찬 창조물로 일며선 남포유리병공장,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그 존한 생산흐름을 타고 련이 어 흘러나오는 유리병들을 보며 친환경을 아끼지 않는다.

지난 1월 중순 새로 건설된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설비,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현대적인 유리병공장을 짚은 기간에 훌륭히 건설하고자 다른 만족을 표시하면서 공장의 공동체급과 건설자, 지원자들의 공로를 격려해주시고

감사를 주시였다.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 대고조로 들끓는 오늘의 현실은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부딪치는 시련과 난관을 극복해 냉고나가는 용감한 공격 정신,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을 높이 밭휘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마전 이곳 유리병 생산공정을 돌아보면서 인민생산에 들어간에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면서 공장의 공동체급과 건설자, 지원자들의 투쟁이 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지난해 2월초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한 현대적인 유리병 생산기지를 꾸밀 때부터 남포시당위원회에 제기되었을 때였다.

유리병 공장건설 문제를 토의하는 첫 회의에서 시당책임일군은 이렇게 호소하였다.

—공장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 자금에 대한 그 어떤 담보도 없다. 오직 우리 남포시안의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밖에 믿을 것이 없다.

당에서 말거운 파업을 무조건 수행하여 강성대국 문을 앞장에서 여는 선구자의 영예를 빛내일 일념안고 시급기판과 중요공장, 기업소의 일군들을 부터가 큼직큼직한 일감을 한 가지씩 맡아안았다.

생산건물과 창사들을 개진하는 공사와 구내와 울타리를 등을 선군시대의 미감에 맞게 꾸리

지원자들도 완공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길 한마음으로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며 협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나갔다.

그러나 건축공사에 비하여 더 어려운 난관이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었다. 현대적인 유리병 생산공정에 필요한 설비들을 자체로 해결하여야 하였던 것이다.

우리 당의 최첨단돌파사상의 생활력을 실천으로 증명하기 위한 보람찬 탐구의 난과 밤이 흘렀다.

내화물생산을 맡은 돌격대의 기술자, 기동공들이 용해로의 짐장차고로 할 수 있는 전기용 용주조내화벽들을 자체로 만들기 위해 멀쳐나섰다. 이들은

시작임일 군들의 방조임을 황해남도와 평안남도 등 여러곳을 오가며 필요한 원료들을 마련하고 기술자료들을 연구한데 기 초하여 시험생산을 해보았다.

실패 또 실패…

لين이은 실패의 쓴맛을 보았지만 결코 물려설 자리가 없는 그들이었다. 어떤 날에는 하루에 여러 차례의 실험을 진행하기도 하면서 그들은 성공의 실마리를 하나하나 찾아나갔다.

고심어린 탐구의 불라는 열정으로 돌격대원들은 드디어 불가능하다면 전기용융주조내화벽들생산의 성공을 알아왔다.

자체로 완성한 용해로를 바라보며 그들모두의 기습속에 차

여기에는 철수백m³의 토량을 처리해나온 원료배합장과 용해로, 서평장의 기초골착공사를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용기백배한 그 기세로 대안천선유리공장 분공장의 로동자들은 5일동안에 용해로기초공크리트처치를 완성하고 강선산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은 드디어 불가능하다면 전기용융주조내화벽들생산의 성공을 알아왔다.

자체로 완성한 용해로를 바라보며 그들모두의 기습속에 차

여기에는 철수백m³의 토량을 처리해나온 원료배합장과 용해로, 서평장의 기초골착공사를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용기백배한 그 기세로 대안천선유리공장 분공장의 로동자들은 5일동안에 용해로기초공크리트처치를 완성하고 강선산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은 드디어 불가능하다면 전기용융주조내화벽들생산의 성공을 알아왔다.

자체로 완성한 용해로를 바라보며 그들모두의 기습속에 차

여기에는 철수백m³의 토량을 처리해나온 원료배합장과 용해로, 서평장의 기초골착공사를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용기백배한 그 기세로 대안천선유리공장 분공장의 로동자들은 5일동안에 용해로기초공크리트처치를 완성하고 강선산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은 드디어 불가능하다면 전기용융주조내화벽들생산의 성공을 알아왔다.

자체로 완성한 용해로를 바라보며 그들모두의 기습속에 차

여기에는 철수백m³의 토량을 처리해나온 원료배합장과 용해로, 서평장의 기초골착공사를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용기백배한 그 기세로 대안천선유리공장 분공장의 로동자들은 5일동안에 용해로기초공크리트처치를 완성하고 강선산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은 드디어 불가능하다면 전기용융주조내화벽들생산의 성공을 알아왔다.

자체로 완성한 용해로를 바라보며 그들모두의 기습속에 차

여기에는 철수백m³의 토량을 처리해나온 원료배합장과 용해로, 서평장의 기초골착공사를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용기백배한 그 기세로 대안천선유리공장 분공장의 로동자들은 5일동안에 용해로기초공크리트처치를 완성하고 강선산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은 드디어 불가능하다면 전기용융주조내화벽들생산의 성공을 알아왔다.

자체로 완성한 용해로를 바라보며 그들모두의 기습속에 차

여기에는 철수백m³의 토량을 처리해나온 원료배합장과 용해로, 서평장의 기초골착공사를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용기백배한 그 기세로 대안천선유리공장 분공장의 로동자들은 5일동안에 용해로기초공크리트처치를 완성하고 강선산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은 드디어 불가능하다면 전기용융주조내화벽들생산의 성공을 알아왔다.

자체로 완성한 용해로를 바라보며 그들모두의 기습속에 차

여기에는 철수백m³의 토량을 처리해나온 원료배합장과 용해로, 서평장의 기초골착공사를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용기백배한 그 기세로 대안천선유리공장 분공장의 로동자들은 5일동안에 용해로기초공크리트처치를 완성하고 강선산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은 드디어 불가능하다면 전기용융주조내화벽들생산의 성공을 알아왔다.

자체로 완성한 용해로를 바라보며 그들모두의 기습속에 차

여기에는 철수백m³의 토량을 처리해나온 원료배합장과 용해로, 서평장의 기초골착공사를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용기백배한 그 기세로 대안천선유리공장 분공장의 로동자들은 5일동안에 용해로기초공크리트처치를 완성하고 강선산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은 드디어 불가능하다면 전기용융주조내화벽들생산의 성공을 알아왔다.

자체로 완성한 용해로를 바라보며 그들모두의 기습속에 차

여기에는 철수백m³의 토량을 처리해나온 원료배합장과 용해로, 서평장의 기초골착공사를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용기백배한 그 기세로 대안천선유리공장 분공장의 로동자들은 5일동안에 용해로기초공크리트처치를 완성하고 강선산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은 드디어 불가능하다면 전기용융주조내화벽들생산의 성공을 알아왔다.

자체로 완성한 용해로를 바라보며 그들모두의 기습속에 차

여기에는 철수백m³의 토량을 처리해나온 원료배합장과 용해로, 서평장의 기초골착공사를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용기백배한 그 기세로 대안천선유리공장 분공장의 로동자들은 5일동안에 용해로기초공크리트처치를 완성하고 강선산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은 드디어 불가능하다면 전기용융주조내화벽들생산의 성공을 알아왔다.

자체로 완성한 용해로를 바라보며 그들모두의 기습속에 차

여기에는 철수백m³의 토량을 처리해나온 원료배합장과 용해로, 서평장의 기초골착공사를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용기백배한 그 기세로 대안천선유리공장 분공장의 로동자들은 5일동안에 용해로기초공크리트처치를 완성하고 강선산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은 드디어 불가능하다면 전기용융주조내화벽들생산의 성공을 알아왔다.

자체로 완성한 용해로를 바라보며 그들모두의 기습속에 차

여기에는 철수백m³의 토량을 처리해나온 원료배합장과 용해로, 서평장의 기초골착공사를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용기백배한 그 기세로 대안천선유리공장 분공장의 로동자들은 5일동안에 용해로기초공크리트처치를 완성하고 강선산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은 드디어 불가능하다면 전기용융주조내화벽들생산의 성공을 알아왔다.

자체로 완성한 용해로를 바라보며 그들모두의 기습속에 차

여기에는 철수백m³의 토량을 처리해나온 원료배합장과 용해로, 서평장의 기초골착공사를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용기백배한 그 기세로 대안천선유리공장 분공장의 로동자들은 5일동안에 용해로기초공크리트처치를 완성하고 강선산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은 드디어 불가능하다면 전기용융주조내화벽들생산의 성공을 알아왔다.

자체로 완성한 용해로를 바라보며 그들모두의 기습속에 차

여기에는 철수백m³의 토량을 처리해나온 원료배합장과 용해로, 서평장의 기초골착공사를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용기백배한 그 기세로 대안천선유리공장 분공장의 로동자들은 5일동안에 용해로기초공크리트처치를 완성하고 강선산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은 드디어 불가능하다면 전기용융주조내화벽들생산의 성공을 알아왔다.

자체로 완성한 용해로를 바라보며 그들모두의 기습속에 차

여기에는 철수백m³의 토량을 처리해나온 원료배합장과 용해로, 서평장의 기초골착공사를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용기백배한 그 기세로 대안천선유리공장 분공장의 로동자들은 5일동안에 용해로기초공크리트처치를 완성하고 강선산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은 드디어 불가능하다면 전기용융주조내화벽들생산의 성공을 알아왔다.

자체로 완성한 용해로를 바라보며 그들모두의 기습속에 차

여기에는 철수백m³의 토량을 처리해나온 원료배합장과 용해로, 서평장의 기초골착공사를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용기백배한 그 기세로 대안천선유리공장 분공장의 로동자들은 5일동안에 용해로기초공크리트처치를 완성하고 강선산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은 드디어 불가능하다면 전기용융주조내화벽들생산의 성공을 알아왔다.

자체로 완성한 용해로를 바라보며 그들모두의 기습속에 차

여기에는 철수백m³의 토량을 처리해나온 원료배합장과 용해로, 서평장의 기초골착공사를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용기백배한 그 기세로 대안천선유리공장 분공장의 로동자들은 5일동안에 용해로기초공크리트처치를 완성하고 강선산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은 드디어 불가능하다면 전기용융주조내화벽들생산의 성공을 알아왔다.

자체로 완성한 용해로를 바라보며 그들모두의 기습속에 차

여기에는 철수백m³의 토량을 처리해나온 원료배합장과 용해로, 서평장의 기초골착공사를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용기백배한 그 기세로 대안천선유리공장 분공장의 로동자들은 5일동안에 용해로기초공크리트처치를 완성하고 강선산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은 드디어 불가능하다면 전기용융주조내화벽들생산의 성공을 알아왔다.

자체로 완성한 용해로를 바라보며 그들모두의 기습속에 차

여기에는 철수백m³의 토량을 처리해나온 원료배합장과 용해로, 서평장의 기초골착공사를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용기백배한 그 기세로 대안천선유리공장 분공장의 로동자들은 5일동안에 용해로기초공크리트처치를 완성하고 강선산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은 드디어 불가능하다면 전기용융주조내화벽들생산의 성공을 알아왔다.

자체로 완성한 용해로를 바라보며 그들모두의 기습속에 차

여기에는 철수백m³의 토량을 처리해나온 원료배합장과 용해로, 서평장의 기초골착공사를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용기백배한 그 기세로 대안천선유리공장 분공장의 로동자들은 5일동안에 용해로기초공크리트처치를 완성하고 강선산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은 드디어 불가능하다면 전기용융주조내화벽들생산의 성공을 알아왔다.

자체로 완성한 용해로를 바라보며 그들모두의 기습속에 차

여기에는 철수백m³의 토량을 처리해나온 원료배합장과 용해로, 서평장의 기초골착공사를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용기백배한 그 기세로 대안천선유리공장 분공장의 로동자들은 5일동안에 용해로기초공크리트처치를 완성하고 강선산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은 드디어 불가능하다면 전기용융주조내화벽들생산의 성공을 알아왔다.

자체로 완성한 용해로를 바라보며 그들모두의 기습속에 차

여기에는 철수백m³의 토량을 처리해나온 원료배합장과 용해로, 서평장의 기초골착공사를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절절한 그리움,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속에 만발하는 불멸의 꽃

제 15 차 김정일화 축전 장에서

최첨단돌파로 조국을 빛내여갈 신념 불탄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기 수령, 자기 당의
위대성에 대한 신념, 자기
인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
이것은 곧 힘 있고 절정이고
혁명적ぱ주주의의 초석이라고
말할수 있다.»

맑고 푸른 나의 하늘을
배경으로 우리 과학자들이 힘과
지혜를 합쳐 쏘울린 인공지구위
성모형들이 선군조선의 위용을
자랑하듯 뜻을 떠있었다.

그것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대여섯 살 나이로는 사내애가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엄마, 어느것이 <평생성 1>
호나요? 오, 그럼 저 전
<평생성 2>로구나. 야, 정말
있는데… 다음번에는 내가
<평생성 3>호를 쇄울필례야.»

아직은 어머니께서는 광활
웅성을 부리는 나이이전만 그
에의 가슴속에는 너두도 훌륭
한 결심이 자리잡고있었다.

아들의 나래는 희망을 긍
정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정
답답게 들려왔다.

«그래그래, 어서 커서 세번째
위성은 네가 꼭 쇄울려라.»
이것이 국가과학원전시대 앞
에서 우리가 목격한 일이었다.

축전의 시작과 더불어 전시대
로 끝없이 다가서는 참관자들의
물결속에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비단 이들만이 아니었다.

곁에서 누군가가 래해를 구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선
인민군 군인들이 사진을 찍었
다고 하는것이었다.

국가과학원전시대 배경으로
찍을 때마다 찍고 해설강사와
함께 침체사진도 찍는 군인들이
틈을 보면서 보느라니 마치

경흥지도국 일군들과 종업원들

지난해 12월 경흥지도국
김정일화 축전 실무에 사
들은 뜻밖의 난관앞에서 가슴
이 뉘려 있는것만 같았다.
파연 2월의 명절에 불멸의
꽃들을 활짝 피워낼수
있을가?

바로 이 때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 선홍식으로 공장
과 향만부대 출식당을 찾았
주시었다는 강력적인 소식
에 접하게 되었다. 그처럼
매번 날씨에 평양발기로
공공장을 현지지도하신 그
길로 선홍식료공장과 향만
부대 출식당을 찾아 주신
아버지장군님!

그날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
는 훌륭하게 꾸려진 여러 꽃
를 돌아보면서 인민을 위
해 더 잘 봉사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을 세상에
서 제일 잘 살게 해주시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고
마음쓰는 어버이장군님의
리상을 하루빨리 꽂고우는
길에 심장을 다 바치자!

이런 신념과 의지로 경흥지
도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국가과학원전시대를

강력한 군력도 우리의 정신력에
첨단과학기술이 결합될 때 마련
된다는것을 뜻깊게 상정하는 하
나의 군상처럼 느껴졌다.

이윽고 전시대를 돌아보며
정밀봉에서 양방 터져오르는 촉
포가 정말 신통하고자, 베틀개
피여난 소백수가에 직접 와
있는듯 한 감을 갖고 감탄하는
그들에게 국가과학원 부원

로는 수고를 기울여온 리의
구, 김광천동무를 비롯한 일군
들도 있었고 지난 1월 경에 하는
장군님을 자기 단위에 모시었
던 국가과학원 생활공학분원
원장 허평춘동무를 비롯한 일
군들과 과학자들도 있었다.

«우리들은 그처럼 추운 날에
분원을 찾아주시여 최첨단돌파
전에 힘써 우리 선수들을 각각
우리의 이곳을 찾았다.

전시대 앞에서 잠깐씩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각각이었지만
풀고있는 생각은 한결 같으리라
고 우리는 믿었다.

자기들이 서있는 초소를 전
선창호로 생각하고 누구보다
남먼저 최첨단돌파의 장훈을
불러 기적과 혁신을 이루어내
는 생각, 천만군민의 신념과 힘
과 그 글밭에서 힘 있게 백차치고
있음을 절감하며 우리는 다른 전
시대들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사진 본사기자 김광천

그때에도 과학기술이라는 보검
을 더 억세게 틀어쥐고 계속혁
신, 계속비약하겠다는 결심이
그들로 하여금 과학원전시
대를 돌아보며 사진도 죽고 마
음속길의 새롭게 다지게 하
는것이었다.

그 모든 지향과 결의를 대변
하기라도 하듯 우리의 인공지
구위성이 하늘을 날고있는것을
우리 청년들에 경애하는 장
군님을 우리 려 삼가

드리는 다함없는 감사
의 정이 풍기며 사사로운
인계오는 김일성사회주
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전시대 앞에서 서있다.

«회 불!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 뜻을 달고
여러 청년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려 삼가
드리는 것에 안겨 주시고
크나큰 밀음을 안겨 주
시며 우리 청년들이 혁신의
시대에 올라타는 것을 용감히
여러 청년들이 투进军이라
면 더욱 빠르게 확대되어 우
리의 눈앞에 뚜렷이 안겨 왔다.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
만세!»

과학기술로 기여이 강성대 국
을 전설하려는 우리 당의 사상과
의지, 천만군민의 신념과 힘
과 그 글밭에서 힘 있게 백차치고
있음을 절감하며 우리는 다른 전
시대들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사진 본사기자 김광천

그때에도 과학기술이라는 보검
을 더 억세게 틀어쥐고 계속혁
신, 계속비약하겠다는 결심이
그들로 하여금 과학원전시
대를 돌아보며 사진도 죽고 마
음속길의 새롭게 다지게 하
는것이었다.

그 모든 지향과 결의를 대변
하기라도 하듯 우리의 인공지
구위성이 하늘을 날고있는것을
우리 청년들에 경애하는 장
군님을 우리 려 삼가

드리는 다함없는 감사
의 정이 풍기며 사사로운
인계오는 김일성사회주
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전시대 앞에서 서있다.

«회 불!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 뜻을 달고
여러 청년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려 삼가

드리는 것에 안겨 주시고
크나큰 밀음을 안겨 주
시며 우리 청년들이 혁신의
시대에 올라타는 것을 용감히
여러 청년들이 투进军이라
면 더욱 빠르게 확대되어 우
리의 눈앞에 뚜렷이 안겨 왔다.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
만세!»

그때에도 과학기술이라는 보검
을 더 억세게 틀어쥐고 계속혁
신, 계속비약하겠다는 결심이
그들로 하여금 과학원전시
대를 돌아보며 사진도 죽고 마
음속길의 새롭게 다지게 하
는것이었다.

그 모든 지향과 결의를 대변
하기라도 하듯 우리의 인공지
구위성이 하늘을 날고있는것을
우리 청년들에 경애하는 장
군님을 우리 려 삼가

드리는 다함없는 감사
의 정이 풍기며 사사로운
인계오는 김일성사회주
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전시대 앞에서 서있다.

«회 불!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 뜻을 달고
여러 청년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려 삼가

드리는 것에 안겨 주시고
크나큰 밀음을 안겨 주
시며 우리 청년들이 혁신의
시대에 올라타는 것을 용감히
여러 청년들이 투进军이라
면 더욱 빠르게 확대되어 우
리의 눈앞에 뚜렷이 안겨 왔다.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
만세!»

그때에도 과학기술이라는 보검
을 더 억세게 틀어쥐고 계속혁
신, 계속비약하겠다는 결심이
그들로 하여금 과학원전시
대를 돌아보며 사진도 죽고 마
음속길의 새롭게 다지게 하
는것이었다.

그 모든 지향과 결의를 대변
하기라도 하듯 우리의 인공지
구위성이 하늘을 날고있는것을
우리 청년들에 경애하는 장
군님을 우리 려 삼가

드리는 다함없는 감사
의 정이 풍기며 사사로운
인계오는 김일성사회주
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전시대 앞에서 서있다.

«회 불!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 뜻을 달고
여러 청년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려 삼가

드리는 것에 안겨 주시고
크나큰 밀음을 안겨 주
시며 우리 청년들이 혁신의
시대에 올라타는 것을 용감히
여러 청년들이 투进军이라
면 더욱 빠르게 확대되어 우
리의 눈앞에 뚜렷이 안겨 왔다.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
만세!»

그때에도 과학기술이라는 보검
을 더 억세게 틀어쥐고 계속혁
신, 계속비약하겠다는 결심이
그들로 하여금 과학원전시
대를 돌아보며 사진도 죽고 마
음속길의 새롭게 다지게 하
는것이었다.

그 모든 지향과 결의를 대변
하기라도 하듯 우리의 인공지
구위성이 하늘을 날고있는것을
우리 청년들에 경애하는 장
군님을 우리 려 삼가

드리는 다함없는 감사
의 정이 풍기며 사사로운
인계오는 김일성사회주
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전시대 앞에서 서있다.

«회 불!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 뜻을 달고
여러 청년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려 삼가

드리는 것에 안겨 주시고
크나큰 밀음을 안겨 주
시며 우리 청년들이 혁신의
시대에 올라타는 것을 용감히
여러 청년들이 투进军이라
면 더욱 빠르게 확대되어 우
리의 눈앞에 뚜렷이 안겨 왔다.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
만세!»

그때에도 과학기술이라는 보검
을 더 억세게 틀어쥐고 계속혁
신, 계속비약하겠다는 결심이
그들로 하여금 과학원전시
대를 돌아보며 사진도 죽고 마
음속길의 새롭게 다지게 하
는것이었다.

그 모든 지향과 결의를 대변
하기라도 하듯 우리의 인공지
구위성이 하늘을 날고있는것을
우리 청년들에 경애하는 장
군님을 우리 려 삼가

드리는 다함없는 감사
의 정이 풍기며 사사로운
인계오는 김일성사회주
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전시대 앞에서 서있다.

«회 불!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 뜻을 달고
여러 청년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려 삼가

드리는 것에 안겨 주시고
크나큰 밀음을 안겨 주
시며 우리 청년들이 혁신의
시대에 올라타는 것을 용감히
여러 청년들이 투进军이라
면 더욱 빠르게 확대되어 우
리의 눈앞에 뚜렷이 안겨 왔다.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
만세!»

그때에도 과학기술이라는 보검
을 더 억세게 틀어쥐고 계속혁
신, 계속비약하겠다는 결심이
그들로 하여금 과학원전시
대를 돌아보며 사진도 죽고 마
음속길의 새롭게 다지게 하
는것이었다.

그 모든 지향과 결의를 대변
하기라도 하듯 우리의 인공지
구위성이 하늘을 날고있는것을
우리 청년들에 경애하는 장
군님을 우리 려 삼가

드리는 다함없는 감사
의 정이 풍기며 사사로운
인계오는 김일성사회주
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전시대 앞에서 서있다.

«회 불!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 뜻을 달고
여러 청년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려 삼가

드리는 것에 안겨 주시고
크나큰 밀음을 안겨 주
시며 우리 청년들이 혁신의
시대에 올라타는 것을 용감히
여러 청년들이 투进军이라
면 더욱 빠르게 확대되어 우
리의 눈앞에 뚜렷이 안겨 왔다.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
만세!»

그때에도 과학기술이라는 보검
을 더 억세게 틀어쥐고 계속혁
신, 계속비약하겠다는 결심이
그들로 하여금 과학원전시
대를 돌아보며 사진도 죽고 마
음속길의 새롭게 다지게 하
는것이었다.

그 모든 지향과 결의를 대변
하기라도 하듯 우리의 인공지
구위성이 하늘을 날고있는것을
우리 청년들에 경애하는 장
군님을 우리 려 삼가

드리는 다함없는 감사
의 정이 풍기며 사사로운
인계오는 김일성사회주
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전시대 앞에서 서있다.

«회 불!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 뜻을 달고
여러 청년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려 삼가

드리는 것에 안겨 주시고
크나큰 밀음을 안겨 주
시며 우리 청년들이 혁신의
시대에 올라타는 것을 용감히
여러 청년들이 투进军이라
면 더욱 빠르게 확대되어 우
리의 눈앞에 뚜렷이 안겨 왔다.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
만세!»

그때에도 과학기술이라는 보검
을 더 억세게 틀어쥐고 계속혁
신, 계속비약하겠다는 결심이
그들로 하여금 과학원전시
대를 돌아보며 사진도 죽고 마
음속길의 새롭게 다지게 하
는것이었다.

그 모든 지향과 결의를 대변
하기라도 하듯 우리의 인공지
구위성이 하늘을 날고있는것을
우리 청년들에 경애하는 장
군님을 우리 려 삼가

드리는 다함없는 감사
의 정이 풍기며 사사로운
인계오는 김일성사회주
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전시대 앞에서 서있다.

«회 불!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 뜻을 달고
여러 청년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려 삼가

드리는 것에 안겨 주시고
크나큰 밀음을 안겨 주
시며 우리 청년들이 혁신의
시대에 올라타는 것을 용감히
여러 청년들이 투进军이라
면 더욱 빠르게 확대되어 우
리의 눈앞에 뚜렷이 안겨 왔다.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
만세!»

그때에도 과학기술이라는 보검
을 더 억세게 틀어쥐고 계속혁
신, 계속비약하겠다는 결심이
그들로 하여금 과학원전시
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깊이 새겨주시며

이 땅의 누구나 사랑하며 부르는 노래가 있다.

오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혼절같고 문명한 민족이라오 자랑하지 우리 민족 사랑하자 우리 의 땅 세상천지 둘러봐도 우리 민족 제일 일세 ...

조선민족의 궁지와 자부심을 한껏 안겨주며 울려퍼지는 이 노래를 들을 수록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지는 생각은 무었인가. 그것은 열렬한 애국자 이시며 절세의 위인이나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여 우리의 민족성이 고수되고 날로 더욱 찬란히 꽂혀난다는데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 오늘은 나라 인민의 가슴마다에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이 차넘치고 조국 땅 가는 곳마다 우리의 민족성이 활짝 꽂혀나고 있는 자랑찬 현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사상과 행동이 안아온 것이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당은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우리 인민이 우수한 민족적 전통을 적극 살렸으며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였다.»

민족의 우구한 풍습과 전통을 고수하고 활짝 꽂혀나고 있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도고를 전하는 감동적인 일회들을 드리운 경성속에 새겨졌다.

주체 53 (1964)년 3월 어느 날 저녁,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외국의 대표단을 환영하는 연회준비를 하고 있는 옥류관으로 몸소 나오시였다. 일군들이 유틸리는 인사를 반갑게 받아 주신 장군님께서는 오늘 연회에 대한 수령님께서는 창작하시는 것만을 특별히 잘 준비해야 하겠다고 이르시며 연회장준비실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준비한 료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잠시 무엇인가 생각하시다가 료리처럼 표를 좀 보자고 하시었다. 한 일군이 드린 료리처럼 표를 보신 그이께서는 왜 우리 료리로 비중이 적은가고 물으셨다.

일군은 상대측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있고 또 유럽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어떤 료리를 내놓으려고 했다고 말씀드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집에 온 손님에게 우리 집을 속에서 대접하는 것은 우리 인민의 미풍양속의 하나라고 하시면서 조선료리를 제일이라고, 조선료리는 력사가 매우 오래고 면을 깊고 깨끗하다고, 우리나라에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은 조선료리를 먹을 때마다 그을은 민족을 끌어내고 놓고도 우리 민족의 순결을 지켜내고 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설명질과 정월 대보름 등 명절날이면 갖가지 민족음식을 만들며 먹고 유통이나 씨름, 그네 뛰기와 놀기 등이 같은 민족놀이를 하며 아주 좋아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면서 준비탁에 있는 신선로를 가져와서 신선로로는 우리 나라의 특색한 료리라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속에서 대접하는 것을 대단하다고, 오늘연회에는 신선로를 내놓아야 한다고 따뜻이 일깨워주셨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침대로 그 날 연회상에는 신선로가 오르게 되었다. 외국손님들은 신선로의 맛을 보고는 저마다 친한 끝에 끊어지거나 먹을 때마다 그을은 민족을 끌어내고 있다.

사람들의 흥취를 한껏 돋구어주는 우리의 민족과 민족악기들에는 또 얼마나 감동깊은 이야기가 깃들어있는지가.

오늘도 끝나기 깊어지는 신선로를 끌어내거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오늘연회는 대성공이라고 하시면서 먼저 생각하시고 그것을 끝내이시려고 그마저는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고는 일군들의 눈을 젖어들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전 어느 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군들에게 조선 음식에 대한 특강을 해주신 사연도 사연들이 기술을 드롭하며 울려나왔다. 그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음식은 신선로를 먹고는 끝까지 신하고 칠칠맛이 있으며 향기로와 사람들의 구미를 당기게 한다고 하시며

민족의 우수성은 곧 수령의 위대 성

조선음식의 종류와 양념감, 만드는 법, 지어는 음식차림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일군들은 우리 장군님께서 분파 초를 조개가시는 그 비쁘신 속에서도 어찌하여 여전 시간 조선음식에 대한 강장을 하시는지 그 속고한 뜻이 헤아려져 가슴이 후려워졌다.

민족음식 하나를 놓고도 우리 민족의 식생활을 허락하지 않고 조선 사람의 지혜와 습기를 떨치고 민족적 궁지와 지부심을 놓여주시려는 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의지이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설명질과 정월 대보름 등 명절날이면 갖가지 민족음식을 만들며 먹고 유통이나 씨름, 그네 뛰기와 놀기 등이 같은 민족놀이를 하며 앞날에 대한 신심을 안고 떠나온다.

우리 조국이 중첩되는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생기와 활력을 잃지 않고 승승장구해 나가고 있는 것은 절적으로 민족성의 최고재현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험경의 진두에 놓이 모시고 있기에 때문이다.

정녕 경애하는 장군님은 천만군민의 가슴에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는 민족적 궁지와 자부심을 깊이 심어주시는 국애족의 최고교화신이시다.

우리 민족이 대대로 수놓아온 우수한 민족적 전통을 끌어내고 애국으로 강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하루빨리 건설하시려는 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의지이다.

걸세의 이국자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혁명한 행도의 순길따라 우리 민족은 앞으로도 영원히 조선민족의 불굴의 정신력, 눈부신 창조력과 습기와 기상을 한껏 펼치며 민족문화의 환희를 한탄해 꽂피워나갈 것이다.

정녕 위대한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놓이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그나쁜 궁지와 영광을 안고 온 나라인민이 부르는 노래 «우리 민족 제일 일세»는 끝없이 메아리치고 있다.

본사기자 김향미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한 마음한뜻으로 굳게 통친 일심단결의 힘으로 강성대국건설위업을 힘 있게 추동하고 있는 우리 공화국의 자랑찬 현실은 오늘 남녘겨레들 속에서 끝없는 경란을 자아내고 있다.

남조선의 민족미래연구모임은 한 연구위원은 «신념의 기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사실 오늘 난관으로 치면 이북만큼 간고한 나라는 없다. 하지만 이북은 고력을 없다.

그 힘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다름아닌 자기 평도자에 대한 이북민족의 굳은 신뢰이다.

사회주의 수호전을 통해 다져진 일심단결은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전당, 전국, 전민의 동지적 단결과 협연적 뉘대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 오늘날의 천출위인으로 우러르며 그이만을 굳게 밀고 따르려는 고집한 마음이 뜨겁게 흘러 넘치고 있다.

남녘겨레들속에서 울려나오는 이러한 심장의 목소리마다에는 불의 세계를 간동시키나가고 있다.

«이북이 고난의 행군기록과 기술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1»호를 발사하는 기적을 창조해 놓았을 수 있었고 오늘은 세인을 놀라우는 기적을 창조하며 강성대국건설위업을 힘 있게 다그치고 있음을 것이다.»

«이북이 유기체로 되어있다.» «북

네온 전세계를 간동시키는 선군정치가 있고 학무기보다 삼고 위대한 대고조역사를 펼쳐가는 경연회에서 고기초하게 혁명적으로 굳게 결속되어 있고 운 사회가 막그대로 하나의 산 유기체로 되어있다.»

«이북은 고난의 행군을 고집하고 나라는 없다. 하지만 이북은 고력을 있다.»

사회주의 수호전을 통한 혁명의 명장, 세계적 정치 원로인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전당, 전국, 전민의 동지적 단결과 협연적 뉘대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 오늘날의 천출위인으로 우러르며 그이만을 굳게 밀고 따르려는 고집한 마음이 뜨겁게 흘러 넘치고 있다.

남조선의 출판물들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천만군민이 사장도 뜻도 숨길도 함께 하는 우리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및내여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천출위인으로 우러르며 그이만을 굳게 밀고 따르려는 고집한 마음이 뜨겁게 흘러 넘치고 있다.

남조선의 출판물들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천만군민이 사장도 뜻도 숨길도 숨길도 함께 하는 우리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및내여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천출위인으로 우러르며 그이만을 굳게 밀고 따르려는 고집한 마음이 뜨겁게 흘러 넘치고 있다.

남조선의 출판물들은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있기에 있다.»

«이북이 자주로 존엄을 떨치고 자립으로 발전하는 참다운 주체의 기상에 있다.»

«이북이 아말로 펼승불패의 강국이다.»

이것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모습에서 민족의 밝은 햇살을 바라보는 남조선인민들의 신념이다.

본사기자 리성호

우리는 다시 눈길을 들어 그림을 보았다.

불수록 민족분열의 아픔이 세대를 엿볼 수 있는 사명감이 더더욱 사무처웠다. 만일 민족분열의 비극이 지속된다면 후대들이 우리 세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귀여운 우리의 아이들은 옹정일장군님을 모시고 있기에 있다. 정녕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우리 민족의 반동세력의 온갖 도검을 물리치고 혁명의 솔직적 진진을 담보하는 펠승의 무기라고 하면서 우리 공화국의 경이적인 혁명의 미루를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는 이북이 아말로 펼승불패의 강국이다.

이것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북의 밝은 햇살이다.

이것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북의 밝은 햇살이다.

이것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북의 밝은 햇살이다.

이것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북의 밝은 햇살이다.

이것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북의 밝은 햇살이다.

이것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북의 밝은 햇살이다.

이것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북의 밝은 햇살이다.

이것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북의 밝은 햇살이다.

이것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북의 밝은 햇살이다.

이것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북의 밝은 햇살이다.

이것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북의 밝은 햇살이다.

이것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북의 밝은 햇살이다.

이것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북의 밝은 햇살이다.

이것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북의 밝은 햇살이다.

이것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북의 밝은 햇살이다.

이것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북의 밝은 햇살이다.

이것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북의 밝은 햇살이다.

이것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북의 밝은 햇살이다.

이것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북의 밝은 햇살이다.

이것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북의 밝은 햇살이다.

이것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북의 밝은 햇살이다.

이것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북의 밝은 햇살이다.

이것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북의 밝은 햇살이다.

이것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북의 밝은 햇살이다.

이것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북의 밝은 햇살이다.

이것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북의 밝은 햇살이다.

이것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북의 밝은 햇살이다.

이것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북의 밝은 햇살이다.

이것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북의 밝은 햇살이다.

이것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북의 밝은 햇살이다.

이것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북의 밝은 햇살이다.

이것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북의 밝은 햇살이다.

이것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북의 밝은 햇살이다.

이것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북의 밝은 햇살이다.

이것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북의 밝은 햇살이다.

이것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북의 밝은 햇살이다.

이것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공화

세계자주화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걸출한 령도자

2월의 명절에 즐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 방송이 특집, 기념 보도

2월의 명절에 즐음하여 로씨야인들이 특집하였다.

«라보체-크레스체 얀스까야 브라우더» 제2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를 모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존경과 칭송을 이어내면서 강성대국으로 확신성있게 전진하고자 지적하였다.

조선에서 사회주의건설과정은 크지 않은 나라라도 오직 자기 힘에 의거하면 존엄을 지키며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고 신문은 강조하였다.

신문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자 인민정부의 확고한 담보로 되는 강한 군력을 마련하시였으며 우리 인민의 강성대국건설투쟁을 진두에서 이끌고 계시는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름대로 오직 자기 힘에 의거하면 존엄을 지키며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고 신문은 강조하였다.

신문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철의 의지와 무비의 달력을, 천변만화의 지략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암살책들을 짓부서버리시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을 승리로 이끌고 계시는데 대하여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한생일을 맞으신는 가장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전강하실것과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실것을 축원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진을 가로막을자 이 세상에 없다. 조선은 강성대국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것이다.

«세르브 이 몰로즈» 제2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호하는 군중에게 담력을, 천변만화의 지략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암살책들을 짓부서버리시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을 승리로 이끌고 계시는데 대하여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한생일을 맞으신는 가장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전강하실것과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실것을 축원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진을 가로막을자 이 세상에 없다. 조선은 강성대국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것이다.

«세르브 이 몰로즈» 제2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호하는 군중에게 담력을, 천변만화의 지략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암살책들을 짓부서버리시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을 승리로 이끌고 계시는데 대하여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한생일을 맞으신는 가장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전강하실것과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실것을 축원한다.

민주공고신문 «라 브로스페리에»는 조선로동당창건 65

연경축 열병식주석단에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을 모시고 인민이 김정일각하를 위하여 어버이로 전세만세 높이 밟들어나갈 일념에 넘쳐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나이제리아신문 «뉴 나이제리언»은 자신의 생신날마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쳐 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칭송하는 내용의 글을 실었다.

* * *

2월의 명절에 즐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이 기념글을 게재하였다.

인디아신문 «페센 인디아»는 1월 25일부터는 «드림없는 의지, 철석의 신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그이께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창조와 혁명의 표지도 밝혀주시고 철학과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열정으로 미련해하지 않았다. 그이의 과학증진정치에 대하여 조선은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자, 천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학문과 함께 시가 하는 것을 국제사회계는 다시금 금방하였다.

김정일총비서를 떠나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 되고 있는 조선로동당의 위용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사회주의의 조선의 시조 이신 김일성주석의 존함으로 길이 나게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선군혁명워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향도적령으로,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기로 따뜻이 보살펴주며 인민대중과 혼연一体를 이루고자, 이 나라의 암살자 TV 및 라지오방송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을 선생으로, 가장 전지전능한 존재로 간주하고 고개하는데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인민은 체험을 통하여 김정일총비서를 따르는 길에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이 있다

는 것을 철저로 간직하였다.

김정일총비서를 모신 조선로동당은 언제나 백전백승할 것이다. 인민을 위해 북무하는 것을 숨고한 사명으로 간직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에 대한 존경과 김정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폭넓고

군길을 이어가고 계신다. 조선인민이 김정일각하를 위하여 어버이로 전세만세 높이 밟들어나갈 일념에 넘쳐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김정일평도자께서는 투철한 과학증진정치를 펼치고 계신다.

그이께서는 어떤 시련에서도 과학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 그 발전에 큰 힘을 넣고 계신다.

하기에 사회주의조선은 지난 세기 말 최악의 경영속에서도 세인을 경탄시키는 과학기술성과들을 이룩할 수 있었다.

김정일평도자께서는 나라의 전반적 과학기술을 최첨단수준에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인디아신문 «인민』은 1월 25일부터는 «드림없는 의지, 철석의 신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그이께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창조와 혁명의 표지도 밝혀주시고 철학과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열정으로 미련해하지 않았다. 그이의 과학증진정치에 대하여 조선은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자, 천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학문과 함께 시가 하는 것을 국제사회계는 다시금 금방하였다.

김정일총비서를 떠나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 되고 있는 조선로동당의 위용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사회주의의 조선의 시조 이신 김일성주석의 존함으로 길이 나게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선군혁명워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향도적령으로,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기로 따뜻이 보살펴주며 인민대중과 혼연一体를 이루고자, 이 나라의 암살자 TV 및 라지오방송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을 선생으로, 가장 전지전능한 존재로 간주하고 고개하는데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인민은 체험을 통하여 김정일총비서를 따르는 길에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이 있다

는 것을 철저로 간직하였다.

김정일총비서를 모신 조선로동당은 언제나 백전백승할 것이다. 인민을 위해 북무하는 것을 숨고한 사명으로 간직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에 대한 존경과 김정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폭넓고

조선은 평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가 국가의 근본초석으로 되고 있는 나라, 전체 인민이 평도자와 사상파파, 윤명을 같이 하는 일심단결의 나라이다.

일심단결은 사회주의조선이 그 어떤 정치풍파에도 그려지지 않게 하는 근본요인, 불가능을 모르고 거친들을 창조하는 근본원천, 대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힘의 근본바탕이다.

신문은 «위인에 대한 매혹, 김정일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위인칭송의 불멸의 꽃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로씨야신문 «나호드킨스끼 라보자»는 1월 28일부터는 인민군인들의 혼련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도를 한 한없는 흥미로운 마음을 소리높이 터치하고 있다.

로씨야신문 «나호드킨스끼 라보자»는 1월 28일부터는 인민군인들의 혼련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도를 한 한없는 흥미로운 마음을 소리높이 터치하고 있다.

로씨야신문 «나호드킨스끼 라보자»는 1월 28일부터는 인민군인들의 혼련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도를 한 한없는 흥미로운 마음을 소리높이 터치하고 있다.

로씨야신문 «나호드킨스끼 라보자»는 1월 28일부터는 인민군인들의 혼련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도를 한 한없는 흥미로운 마음을 소리높이 터치하고 있다.

로씨야신문 «나호드킨스끼 라보자»는 1월 28일부터는 인민군인들의 혼련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도를 한 한없는 흥미로운 마음을 소리높이 터치하고 있다.

로씨야신문 «나호드킨스끼 라보자»는 1월 28일부터는 인민군인들의 혼련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도를 한 한없는 흥미로운 마음을 소리높이 터치하고 있다.

로씨야신문 «나호드킨스끼 라보자»는 1월 28일부터는 인민군인들의 혼련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도를 한 한없는 흥미로운 마음을 소리높이 터치하고 있다.

로씨야신문 «나호드킨스끼 라보자»는 1월 28일부터는 인민군인들의 혼련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도를 한 한없는 흥미로운 마음을 소리높이 터치하고 있다.

로씨야신문 «나호드킨스끼 라보자»는 1월 28일부터는 인민군인들의 혼련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도를 한 한없는 흥미로운 마음을 소리높이 터치하고 있다.

로씨야신문 «나호드킨스끼 라보자»는 1월 28일부터는 인민군인들의 혼련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도를 한 한없는 흥미로운 마음을 소리높이 터치하고 있다.

로씨야신문 «나호드킨스끼 라보자»는 1월 28일부터는 인민군인들의 혼련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도를 한 한없는 흥미로운 마음을 소리높이 터치하고 있다.

로씨야신문 «나호드킨스끼 라보자»는 1월 28일부터는 인민군인들의 혼련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도를 한 한없는 흥미로운 마음을 소리높이 터치하고 있다.

로씨야신문 «나호드킨스끼 라보자»는 1월 28일부터는 인민군인들의 혼련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도를 한 한없는 흥미로운 마음을 소리높이 터치하고 있다.

로씨야신문 «나호드킨스끼 라보자»는 1월 28일부터는 인민군인들의 혼련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도를 한 한없는 흥미로운 마음을 소리높이 터치하고 있다.

로씨야신문 «나호드킨스끼 라보자»는 1월 28일부터는 인민군인들의 혼련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도를 한 한없는 흥미로운 마음을 소리높이 터치하고 있다.

로씨야신문 «나호드킨스끼 라보자»는 1월 28일부터는 인민군인들의 혼련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도를 한 한없는 흥미로운 마음을 소리높이 터치하고 있다.

로씨야신문 «나호드킨스끼 라보자»는 1월 28일부터는 인민군인들의 혼련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도를 한 한없는 흥미로운 마음을 소리높이 터치하고 있다.

로씨야신문 «나호드킨스끼 라보자»는 1월 28일부터는 인민군인들의 혼련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도를 한 한없는 흥미로운 마음을 소리높이 터치하고 있다.

로씨야신문 «나호드킨스끼 라보자»는 1월 28일부터는 인민군인들의 혼련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도를 한 한없는 흥미로운 마음을 소리높이 터치하고 있다.

로씨야신문 «나호드킨스끼 라보자»는 1월 28일부터는 인민군인들의 혼련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도를 한 한없는 흥미로운 마음을 소리높이 터치하고 있다.

로씨야신문 «나호드킨스끼 라보자»는 1월 28일부터는 인민군인들의 혼련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도를 한 한없는 흥미로운 마음을 소리높이 터치하고 있다.

로씨야신문 «나호드킨스끼 라보자»는 1월 28일부터는 인민군인들의 혼련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도를 한 한없는 흥미로운 마음을 소리높이 터치하고 있다.

로씨야신문 «나호드킨스끼 라보자»는 1월 28일부터는 인민군인들의 혼련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도를 한 한없는 흥미로운 마음을 소리높이 터치하고 있다.

로씨야신문 «나호드킨스끼 라보자»는 1월 28일부터는 인민군인들의 혼련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도를 한 한없는 흥미로운 마음을 소리높이 터치하고 있다.

로씨야신문 «나호드킨스끼 라보자»는 1월 28일부터는 인민군인들의 혼련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도를 한 한없는 흥미로운 마음을 소리높이 터치하고 있다.

로씨야신문 «나호드킨스끼 라보자»는 1월 28일부터는 인민군인들의 혼련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도를 한 한없는 흥미로운 마음을 소리높이 터치하고 있다.

로씨야신문 «나호드킨스끼 라보자»는 1월 28일부터는 인민군인들의 혼련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도를 한 한없는 흥미로운 마음을 소리높이 터치하고 있다.

로씨야신문 «나호드킨스끼 라보자»는 1월 28일부터는 인민군인들의 혼련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도를 한 한없는 흥미로운 마음을 소리높이 터치하고 있다.

로씨야신문 «나호드킨스끼 라보자»는 1월 28일부터는 인민군인들의 혼련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도를 한 한없는 흥미로운 마음을 소리높이 터치하고 있다.

로씨야신문 «나호드킨스끼 라보자»는 1월 28일부터는 인민군인들의 혼련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도를 한 한없는 흥미로운 마음을 소리높이 터치하고 있다.

로씨야신문 «나호드킨스끼 라보자»는 1월 28일부터는 인민군인들의 혼련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도를 한 한없는 흥미로운 마음을 소리높이 터치하고 있다.

로씨야신문 «나호드킨스끼 라보자»는 1월 28일부터는 인민군인들의 혼련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도를 한 한없는 흥미로운 마음을 소리높이 터치하고 있다.

로씨야신문 «나호드킨스끼 라보자»는 1월 28일부터는 인민군인들의 혼련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도를 한 한없는 흥미로운 마음을 소리높이 터치하고 있다.

로씨야신문 «나호드킨스끼 라보자»는 1월 28일부터는 인민군인들의 혼련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도를 한 한없는 흥미로운 마음을 소리높이 터치하고 있다.

로씨야신문 «나호드킨스끼 라보자»는 1월 28일부터는 인민군인들의 혼련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도를 한 한없는 흥미로운 마음을 소리높이 터치하고 있다.